

연재기획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단절은 직시하고 경계는 뛰어넘고 … 청년정치의 시작

4부 그림에도 불구하고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박창원 기자 macpark342@knu.ac.kr

연재 기획 - 그림에도 불구하고

1. 청년은 없다
2. 페미니즘이라는 단절
3. 서울과 대학이라는 경계
- 4. 그림에도 불구하고**

#. 앞서 3회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 오늘날 ‘청년정치’가 마주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몇 가지 구조적, 인식적 제반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지목된 제반 조건들은 결국 청년정치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조건 아래에서도 진정한 청년 정치의 성립과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청년정치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한다.

연재 1회차, ‘청년은 없다’에서는 기존의 청년담론이 전제하는 ‘청년’ 범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다했다.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청년이라는 범주가 개개인의 구체성과 다양성을 지워버리는 타자화와 배제의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청년정치는 가능한가’의 출발점이었다.

2회차, ‘페미니즘이라는 단절’과 3회차, ‘대학과 서울이라는 경계’에서는 타자화와 배제 이면에 있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청년들의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을 살펴봤다. 연이는 대학가의 종여학생회 폐지라는 현상을 ‘더 많은, 더 근본적인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여성들’과 ‘페미니즘이 제시하는 성차별 구조에 대한 해석을 거부하는 남성들’을 가르는 거대한 인식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었다.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은 학벌주의, 서울중심주의 같은 구조적 격차와 부조리의 결과를 개인적 노력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린다. ‘공정성에 예민한 청년세대’라는 구호는 맹목적인 경쟁 논리를 내재화한 청년들의 ‘무한분열’을 암시하는 위험신호인지도 모른다.

공정성은 기회의 평등 눈에 띄지 않는 차이 고려해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의 단절과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은 오늘날 청년을 종횡으로 해체하는 두 기점이라고 할 만하다. 청년 스스로 상대를 동등한 의논과 협력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년정치의 이름으로 연대와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



기는 힘들 것이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전라남도 순천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정치그룹 ‘젊은 보수’의 천하람 대표는 청년세대가 공정 담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고 봤다. 천 대표는 “현재 청년세대가 기질적으로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고착화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정된 기회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정의당 비례 1번으로 공천받아 21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가 된 류호정 의원 역시 “청년들은 불평등한 세상에 짓눌려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으로 내몰려 버린 것이다”라면서 “기성 세대가 그런 청년들을 가리켜 단순히 ‘공정성에 예민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다분히 책임회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공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분명히 눈에 띄지 않는 출발선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공정성에 대한 지나친 집중이 경쟁의 모든 영역을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정량평가에 매달리도록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천 대표는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지만 형식적 공정을 맞추는데 갇히는 게 아니라 공정이라는 개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성평가가 필요한 부분에서 경쟁의 참가자들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졌다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신뢰자산’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페미니즘이 제시하는 의제에 기성세대 남성과 2,30대 남성이

다르게 반응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에서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성평등 사회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2,30대 남성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와 달리 자신이 남자라는 이유로 누려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82년생 김지영’의 이야기를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 의원은 청년들이 성별을 초월한 구조적 불평등에 짓눌려 살아가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나도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다른 차별을 보고, 이해하고, 포용할 여유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권 정치의 역할은 감정 충돌을 정제·완화하는 것

천 대표는 제도권 정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

을 밝혔다. 천 대표는 “남성들의 군복 무환경의 열악함이 문제로 제기됐다면 이미 위헌판결이 난 군 가산점을 다시 들고나와 논란에 불을 붙일 게 아니라 합당한 임금과 복지 향상 등 군복 무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출산과 육아에서 여성들이 큰 부담을 지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여성의 경력 지속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안에 따른 성별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제도권 정치의 영역에서는 피해의식을 자극해 감정 충돌이 격해지지 않도록 논의를 정제,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정치의 앞길에 비단 이 두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총학생회연대 조직인 ‘충남세종대학생연합회’의 이호석 의장은 청년들의 정치혐오를 꼽았다. 이 의장은 학생자치 영역에서 겪은 사례를 들려줬다. 그는 “학생회장 시절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학생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한 일이 생겨 집행부 회의에서 규탄 성명을 제안했는데 총학생회 내부에서 조차 ‘굳이 그 렇게까지 하느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한다.

이 의장은 “청년들에게 ‘정치’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어감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청년정치’를 하자고 했을 때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층 사이에서 ‘정치질’이라는 말이 ‘협잡질’의 동의어로 쓰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많은 청년들이 같은 의견과의 연대, 다른 의견과의 타협으로 이뤄지는 ‘정치’를 문제해결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정치를 문제해결 도구로 인식하지 못하는게 공감대 형성 못하는 원인

천 대표는 중앙정치의 ‘뉴페이스 중독’을 꼬집었다. 그는 “정치권에서 스스로가 기초의회나 정당 조직 내에서 훈련과 교육을 거친 젊은 정치인들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유명세와 ‘스토리’를 가진 외부 인사를 영입해 잠깐의 화제 물이에 동원하고 버리는 행태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 역시 천 대표와 백이 달는 견해를 밝혔다. 류 의원은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 이력과 전문성 같은 것들은 결국 물리적 시간이 바탕이 되어야 쓸 수 있는 것들이다”라면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청년에게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정치인이 자체 경쟁력과 업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뛰어드는 고정관념 넘어 새로운 청년정치 펼쳐야

류 의원은 정치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인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무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그런 맥락에서 청년정치란 불평등에 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세대를 직접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관습적으로 해온 것처럼 청년을 단순히 생물학적 연령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는 피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에게 청년을 위한 청년정치란,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체험하는 부조리의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다.

천 대표는 청년정치가 단순히 청년을 위한 정치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청년정치는 정치가로서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진 청년이 하는 정치를 뜻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장에 경제적, 사회적 입지가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등록금, 주거비 지원 같은 정책을 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갇혀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는 “애초에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다른 청년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다’는 태도가 오만일 수 있다”면서 “청년정치는 청년이라는 틀을 넘어서서, 젊은 사람의 시각과 감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모색하는 정치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